

정영한 Chung Younghan (b.1971)

 @chung_youngahan

학 력	2005-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과 졸업 1996-1998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1990-1996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경 력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2023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12기 단주입주작가
개 인 전	2024 브릴로_호기심의 방 (아트센터 자인 기획초대, 서울) 2023 크로니클; 이미지의 신화 (여주시미술관 러 기획초대, 여주) 발견된 신화 (영은미술관 기획초대, 경기 광주) 2022 이미지의 신화, 아트파크 기획초대 (세브란스 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 이미지-時代의 斷想 ; ICON (남송미술관 기획초대, 가평) 2020 이미지-時代의 斷想 (금호미술관, 서울) 2019 Beyond the MYTH (노보시비르스크 시립미술관 기획초대, 러시아) 2008 우리時代 神話, 송은문화재단 기획초대 (송은갤러리, 서울) 2006 우리時代 神話 (갤러리 우덕 기획초대, 서울) 2002 現代-21世紀 風景 (성곡미술관 기획초대, 서울) 1999 現代-21世紀 風景, MBC문화방송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3 올 댓 리얼리즘-All That Realism (갤러리 나무 기획초대, 서울) 2021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 역사전 (여주시미술관 기획초대, 여주) 2021 현대미술의 시선 (양평군립미술관 기획초대, 양평) 2021 SPACE-가상과 실재展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기획초대, 인제) 2019 시물라크르 초월하기 (백학미술관 기획초대, 광주) 2017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 (양평군립미술관 기획초대, 양평) 2017 새로운 형상-실재와 환영전 (석당미술관 기획초대, 부산) 2017 Beyond the Limit-극사실주의展 (포스코갤러리 기획초대, 포항) 2016 극사실 세계와 만나다 (오승우미술관 기획초대, 전남) 2012 극사실주의 회화-낯설은 일상 (은평문화예술회관, 서울) 2012 想 · 像-사진과 회화가 만나다 (쉐마미술관 기획초대, 충북) 그 외 다수
수 상	2017 제37회 주목할 예술가상 수상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최, 서울) 2010 제4회 대한민국미술인의 날 미술인상 본상부문 청년작가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주최, 서울) 2007 제2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주최, 서울) 2006 제6회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수상 (송은문화재단 주최, 서울) 1995 제5회 MBC 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MBC 문화방송 주최, 서울)
작 품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여주시미술관, 정부 마산지방합동청사, 외교통상부, (재)송은문화재단, (재)성남문화재단, (주)MBC문화방송, (주)한국야쿠르트,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주 스페인 대사관 라스팔마스 분관, 주 파키스탄 대사관저, 주 오사카 총영사관, 주 예멘 대사관, 주 리비아 대사관, 주 포르투갈 대사관,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송도 웨라톤 호텔, 두산위브 더제니스 울산 그 외 다수

[Artist's Note]

“브릴로”라는 신화 : 이미지와 재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화가만이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지란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해왔다. 특히 정교한 수법으로 그려진 <우리時代 神話> 시리즈는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여 올라간 물감층, 그것을 다시 최대한 균일하게 정돈하는 작업 과정, 마치 진공상태에 있는 것처럼 바다 위에 부유하는 오브제들을 통해 재현된 이미지에 관한 본질적 문제에 접근했다.

이와 함께 나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신화' 라는 개념으로, 나는 작품 속 대상들을 신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쉽게 소비되는 찰나적 이미지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었으며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이렇듯 개념적인 특성에 주목할 때, 나의 작품은 단편화 된 오늘의 우리 즉, 각각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작인 <時代의 斷想-Image of myth>에 이르러, 나의 작품은 이미지와 재현에 관한 문제와 함께 개념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미지와 재현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나의 회화적 탐구는 익숙하고도 낯선 총격들에서 '예술의 종말 이후' 또한 그 이후의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른바 우리시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신화'를 소통의 도구로 삼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근작들은 화가로서의 나에게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자문자답이다. 나에게 신화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잊고 사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문제 제기,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예술사의 유명들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이러한 묵직한 메시지들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에 전달될 수 있는 회화 이미지의 힘을 되살려내는 것과 다름 없다.

결국, 화가로서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이란 시대와 이미지에 대한 거대 담론을 탐구한 끝에서야 발견한 커다란 상자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참신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꺼내 보여주는 것과 같다. 마치 무엇이 들어있는 지 알 수 없는 마술상자처럼, 아니면 특별한 상품을 추천하는 상자처럼, 또는 설렘 가득한 선물 상자처럼 신화가 된 브릴로 상자 위에 특별한 우리의 서사를 쌓아 올리는 나의 작업은 나의 꿈, 누군가의 즐거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에 감각적 질문을 던지는 '그림'이 될 것이다.